

전남 지자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률 최하위

# 하도급 부조리·불공정 척결의지 있다

## 458건 중 3건뿐...강제규정 없어 소극적

전남 지자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시행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공사·회계 업무 부담증가, 종합건설사 '눈치보기'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는 들어 전남지역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공사(추정가격 2억 이상~100억 미만) 458건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것은 단 3건으로 전체의 0.7%에 그쳤다.

이는 부산시의 119건 가운데 46건

(38.7%), 광주시의 30건 가운데 5건 (16.7%), 충북의 221건 가운데 24건 (10.9%), 강원도의 280건 가운데 19건 (6.8%), 경기의 394건 가운데 20건 (5.1%) 등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전남의 3건은 전남 전문건설협회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건적 관계를 내세워 하소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만큼 전남 지자체들이 제도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제도가 법적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는 권장사항인 탓이다.

또 지자체들이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결 등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

면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의 부담감과 의지 부족, 종합건설사의 눈치보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남 전문건설협회는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해 시공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전문건설업자를 원도급자의 지위로 인정함으로써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전면 도입을 전남지역 각 자치단체에 건의했다.

이상현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은 "이 제도는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인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를 막고 종합과 전문 건설업 간 상생을 통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선진화된

제도"라며 "오는 10월부터 공동으로 개발한 전산 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지자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동수급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불공정 행위 등 문제 해결과 시공비용 감소, 생산성 향상 등을 기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관련 규정을 제정해 전면 시행하고 있다.



송기진(왼쪽에서 세번째) 광주은행장이 7일 중국 상하이 교통은행에서 위 아리(~ 네번째) 재무담당 부행장과 '미화 5000만달러 차입 및 국제금융 업무 협약 서명식'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中 교통은행서 5000만달러 차입

### 국제금융 업무 협약

광주은행은 중국 교통은행과 상하이 현지에서 지난 7일 '미화 5000만달러 차입 및 국제금융 업무 협약 서명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교통은

행으로부터 미화 5000만달러 차입과 함께 두 은행 간 국제금융업무, 위안화 무역 결제 등을 포함한 국제 자금결제 업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두 은행은 서로 이익이 되는 분야에 인력교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광주은행은 상하이엑스포 후원은행으로 은행박물관을 소유한 교통은행과의 교류 확대를 2012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지원과 금융박물관 건립사업 등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우리금융 이번주 중 실사 들어갈 듯

### 예보, 매각주관사 3곳 선정...민영화 작업 본격화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실사에 착수, 민영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8일 우리금융지주 매각주관사로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JP모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이르면 시일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등 3개 매각주관사들은

상견례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중 예라도 우리금융에 대한 매도자 실사 작업에 본격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보 측은 늦어도 내주 초부터는 우리금융 실사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통 매도자 실사가 30~40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실사보고서는 내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각주관사들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 등을 산정해본 뒤 잠재적 매

수자인 금융회사들을 찾아가 금액과 인수 의사 등을 타진해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정부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입찰 공고일을 확정하고 예비 입찰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입찰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입찰 공고 후 예비 입찰 대상자들을 받아 실사를 거쳐 최종 입찰 대상자를 복수로 선정한다"며 "최종 입찰 대상자를 올해 말까지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만~30만원대 추석선물 인기 기업 씬 씬이 커졌다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에서 20만~30만원대의 고가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추석선물을 예약판매한 결과,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20만~30만원대의 비교적 비싼 정육·갈비 선물세트와 굴비 선물세트 매출이 각각 작년 동기 대비

17.2%, 2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은 고가 선물세트의 판매 호조에 대해 "상반기 실적 호조를 보인 법인고객(기업)의 씬 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의 예약 판매 매출선물들은 작년 동기 대비 13.3%를 기록했다. 생선 선물세트 중 '굴비+옥돔', '굴비+갈치', '갈치+옥돔', '꽃게+대하' 등 혼합형 선물세트는 작년보다 매출이 308% 증가했다.

찜용 갈비, 불고기용 등심, 국거리용 사태 등 다양한 부위로 구성된 '냉장 후레쉬육 선물세트'는 매출이 57.7%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은 작년보다 21.6%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 고객 3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세트를 한꺼번에 20~300개씩 대량으로 구매할 때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 애니와의 만남

### 내일 DJ센터서 쇼케이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룸에서 '광주 문화콘텐츠 쇼케이스 2010'을 개최한다.

이날 쇼케이스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및 육성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지역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과 게임·만화 등 모두 18개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작품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우당탕탕 아이쿠'(마로 스튜디오-대표 박일호)와 '주요리 동물탐정'(제이엠에니메이션-대표 정미)은 물론 온라인게임인 '블츠 앤 블립'(에이피스튜디오-대표 박인찬)과 아이폰용 모바일 게임으로 다운로드 순위 3위에 오른 '루나스토리'(인터에이브-대표 이갑영) 등 지역에서 개발한 콘텐츠다.

/김필성기자 kps@

## 전체 인구 15% 베이비부머

<47~55세>

## 자녀 2명에 월소득 353만원

### 평균 은퇴예상 64.4세

### 숙련노동자 부족 우려

한국 전체 인구의 14.6%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평균 2명의 자녀를 두고, 4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1963년 태어나 경제의 '초고속 성장' 시기를 주도한 이후 이 세대는 은퇴를 기다리는 세대를 이룬다.

8일 통계개발원의 '베이비부머세대의 현황·은퇴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모두 713만명(남성 359만명, 여성 35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5%에 육박하는 이들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일부 업종의 노동 공백도 우려된다.

올해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률 74.6%(남성 88.5%, 여성 60.3%)로 4명 가운데 3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평균 초혼 연령은 25.7세로, 평균 자녀 수는 2.0명이었으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28.5%였다.

베이비부머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해 기준 353만원이었다.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는 향후 평균 13.3년간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됐고, 10년 뒤인 2020년에도 375만 명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평균 은퇴예상 연령은 64.4세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다치면서 노동시장에는 일부 산업분야에서 숙련노동자의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 외국계 기업 35곳

## 하반기 직원 채용

## 작년보다 27% 늘린 664명

올 하반기에 외국계 기업들은 작년보다 신입사원 채용을 27% 가까이 늘릴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67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업체가 전체의 52.2%(35개사)에 달했다.

이 업체들이 채용할 인원은 총 664명으로, 작년 하반기 채용인원(523명)에 비해 26.9% 많았다.

채용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의 39.1%는 전체 모집 직무에서 영어면접을 볼 예정이고, 직무별로 영어면접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는 28.1%였다.

오피스나 토의 스킵 같은 영어 구술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는 곳은 20.3%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http://www.hankooktea.co.kr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송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2009년 0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품질 녹차  
**작설차**  
 친환경 다원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T.222-2902.3973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